



나무와 돌이 공존하는 관음사 꽃자왈.



관음사 숲은 세계적인 왕벚나무 원산지로 주목받고 있다.



물체 속에 포자를 가득 품은 먼지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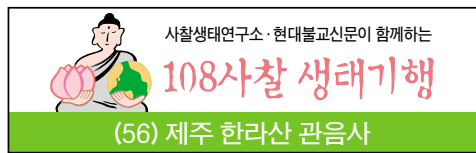


복수초는 봄이 오기전 눈속에서 꽃망울을 터트린다.



한뿌리에 잎이 한장씩 돋는 비비추난.

돌·나무 어우러져 신심 꽃피우는 ‘자연도량’



해발 1950m인 한라산은 화산 폭발과 함께 단번에 오늘날의 모습을 이룬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5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과학자들은 보고 있다.

제주도 지형의 특징인 꽃자왈, 오름, 용암동굴 등도 오랜 풍화나 침식작용의 결과가 아니라 각기 시차를 둔 화산활동의 과정으로 생긴 것이다. 한라산 중산간지대에 분포한 꽃자왈은 한라산만의 특수형 지형이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인 관음사(觀音寺)도 한라산 북사면 꽃자왈 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제주도 불교의 남방전설은 여러 정황이 나오긴 하지만, 이를 고증할 만한 자료는 아직 없다. 제주 불교의 본사인 관음사의 창건사마저도 오리무중에 있다. 속중 때 제주 목사였던 이형상(李衡祥)에 의해 훼손된 후 20세기 초에 이르러 비구니 안봉려관(安逢麗觀) 스님이 그 폐사지대에 법정암(法井庵)이라는 이름으로 관음사를 중창했다고 한다.

관음사는 제주에서 자동차로 불과 10여분 거리에 있다. 산천단(山川壇)은 관음사 가는 길목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 산천단은 제주 목사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제단으로, 주변에 천연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된 여덟그루의 곰솔이 자라고 있다. 수령 6백년에 높이가 30미터 안팎, 둘레가 20미터 안팎인 노거수들이다. 제주도에서는 가장 큰 나무들로 알려져 있다.

일주문에서 경내에 이르는 길 좌우로 편백과 삼나무가 숲을 이루고, 돌담의 석단에는 불보살상들이 도열해 있다.

화산산인 제주도는 어딜 가나 돌이 많다. 관음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화산활동으로 생긴 크고 작은 현무암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 경내의 보도석, 담장, 계단, 석축, 전각의 주춧돌까지도 모두 현무암이다. 진입로에 도열된 수 많은 불상들을 비롯하여 근래 조성한 만불단과 벽사의 방사탑도 예외는 아니다. 심지어는

에 보이지 않는 지하도 모두가 현무암들이다. 관음사를 세운 안봉려관 스님이 관음기도를 했다는 해월굴도 화산활동으로 생긴 현무암 암굴이다. 제주도에서는 화산활동으로 생긴 작은 암굴이나 함정 등을 '계'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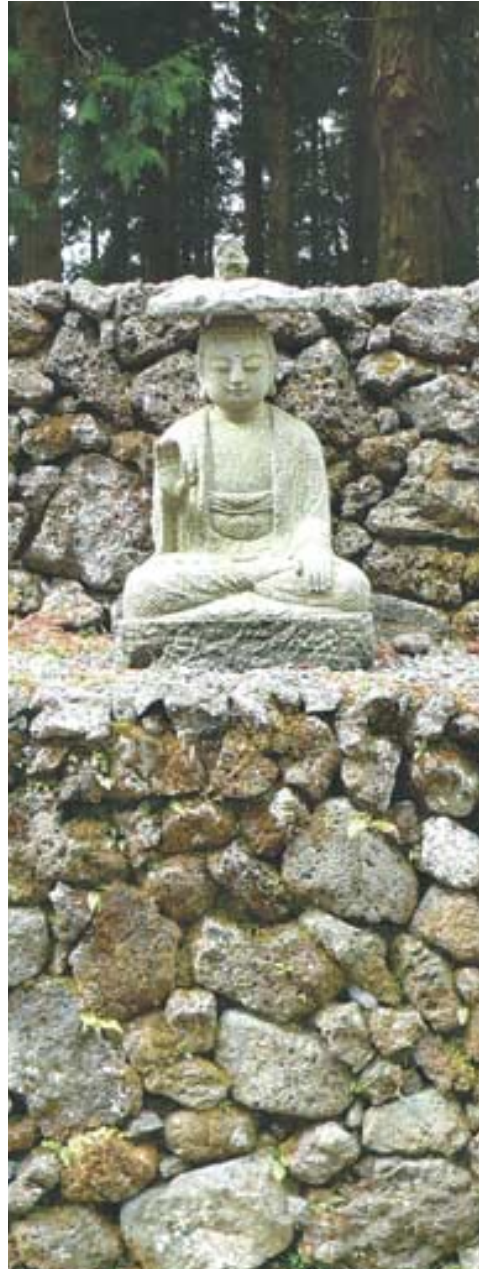
종무소 옆에 큼직한 왕벚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관음사 주변에는 왕벚나무를 비롯하여 울벚나무와 산벚나무 등 벚나무 종류들이 많이 자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것이 왕벚나무이다.

현재 관음사에서부터 해발 1000m에 이르는 구간은 어린 나무에서부터 2000년생으로 추정되는 노거수 왕벚나무들이 자생하고 있어서 관음사 숲이 일찍

들어 돌밭을 덮으면서 목본류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꽃자왈의 숲은 다른 지역의 숲에 비해 엄청난 덩치를 지닐하고서야 이루어진 소중한 숲이다.

한라산 식생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수직분포대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해발 600m에서 1500m까지 중산간지대는 온대림이 자리한다. 관음사 주변과 이어진 국립공원 탐방로 일대도 난대림보다는 낙엽지는 온대활엽수가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내 외에서 관찰되는 난대상록수로는 송악, 사스레피나무, 갈겨리나무, 동백나무, 광장나무 등 몇 종에 불과하고 그나마 개체수도 적다.

이 밖에 서어나무를 비롯해 개서어나무, 졸참나무, 굴피나무, 털팽나무, 때죽나무, 산딸나무, 신수



꽃자왈 지대에 자리잡은 제주 관음사는 지천에 깔린 현무암을 이용해 보도석, 담장, 계단, 석축을 만들었다. 관음사 입구 석단에 모셔진 불상.

관음사 주변과 국립공원 탐방로 일대에는 야생화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복수초를 비롯해 현호색, 개별꽃, 족도리꽃, 봄까치꽃, 노루귀, 만주바람꽃, 개구리발톱꽃, 긴잎제비꽃, 노란제비꽃, 족도리꽃, 남산제비꽃, 냉이꽃, 꽃마리, 자주괴불주머니 등이 매년 3월을 전후하여 꽃봉오리를 터뜨린다.

따뜻한 해양성 기후에 영향을 받아 양치류와 난초과 식물들이 죽지 않고 파랗게 겨울을 난다. 비비추난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경내를 벗어난 숲속에서 이따금 관찰되는 비비추난은 여러해살이로, 잎이 비비추를 닮았다. 잎엽초처럼 한 뿌리에 잎이 한 장씩만 돋는데, 봄이 좀더 무르익으면 거기서 꽃대 하나가 10개가 넘는 작은 꽃들을 조롱조롱 피운다.

관음사와 국립공원 관음사지구 탐방로 숲에선 버섯들도 다양하게 관찰되고 있다. 먼지버섯도 관음사 생태계의 한 식물이다. 식용은 못하지만, 겨울인데도 꽃같은 자태로 눈길을 끈다. 아직 때가 일러 여름철 새는 보이지 않고, 관음사 경내외에서 관찰되는 조류로는 방울새를 비롯한 텃새들이 주류를 이룬다.

방울새는 몸 길이가 15cm 가량되는 되새과의 조류이다. 몸 색깔은 전반적으로 갈색을 띠고, 날개 안쪽은 노란색, 꼬리는 검은 색이다. 큰 씨앗을 깨뜨리고 쉽게 부리가 짧고 뭉뚱하게 생겼다. 동요에 나오는 바로 그 새이다.

관음사와 국립공원 관음사지구 탐방로 숲에서 노루의 발자국이나 배설물을 찾아내거나 그리 어렵지 않다. 뿐만 아니라 가끔 노루들이 나타나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기도 한다.

꽃자왈 지대는 비가 와도 스펀지 같은 지하로 빠져 버리기 때문에 육지에서 흔히 보는 약수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관음사에는 경내에 물을 담은 영지(影池)가 널찍하니 조성되어 있다. 인공으로 조성한 이 영지는 네모난 방치(方池)로, 분수가 끊임없이 물줄기를 쏟아내리고 있다.

관음사의 성역화사업은 일개 단위사찰의 불사가 아니라 제주도민이 함께 하는 국사(國事)이다. 처처소소에서 삼짍을 하기 전에 한번더 심사숙고하는 친환경적 불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산천단 주변 600년 된 여덟그루 곰솔나무 제주서 가장 커 해발 1000m에 자생하고 있는 왕벚나무는 세계가 인정 꽃자왈은 오랜 세월 부엽토층이 쌓여 이뤄진 소중한 숲 최근 금강송 버금가는 소나무 발견 유전적 보존 가치 높아

이 세계적인 왕벚나무 원산지로 인정 받고 있다. 또 하나, 경내에서 눈길을 끄는 노거수로는 밤나무가 있다. 수령 1백년에 가까운 밤나무들이 경내 곳곳에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밤나무마다 갑옷처럼 두르고 있는 고착지의류(固着地衣類:Crustose lichens)만으로도 연륜을 느끼게 한다.

관음사는 중산간 꽃자왈지대에 터를 잡고 있다. 꽃자왈이란 제주도 방언으로, 크고 작은 나무와 돌들이 어지럽게 헝클러진 숲을 가리킨다. 그러나, 식생적인 의미보다는 지형적인 의미가 더 강해서 '숯담בל로 뒤덮힌 돌밭'으로 이해된다.

꽃자왈은 웅암이 크고 작은 돌과 바위로 쪼개지면서 돌밭을 이룬 곳으로, 본래 토양(흙) 한 줌 없는 척박한 지대였다. 이곳에 이끼류가 처음 들어와 수분을 저장하면서 초본들이 들어왔고,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초본들이 죽고 썩어서 얇은 부엽토층을 만

국, 생강나무, 가막살나무, 단풍나무, 박쥐나무, 비목나무, 보리수나무, 윤노리나무, 청미래덩굴 같은 온대 활엽수가 숲을 이루고 있다.

대웅전과 나한전 지역 사이에 우람한 몸집을 자랑하는 곰솔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씨를 받아두어도 좋을 만큼 탐이 나는 곰솔이다.

한라산의 소나무는 적송과 곰솔로 크게 나누어진다. 곰솔은 대개 800m 이하에서 나타나고, 적송은 주로 해발 1,400m 이하의 능선부에서 자라고 있다. 얼마 전, 금강송에 버금가는 질 좋은 소나무 숲이 한라산 정상에서 관음사 방향으로 2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해발 1200m 주변에서 발견되어 주목 받은 적이 있다. 수령 40~50년생인 이 소나무들은 우리나라 소나무의 남방한계선에서 자랄 뿐만 아니라 자연적 성장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유전적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2006년 3월 8일자 대한불교 원효종 "공고" 무효 선언)

현대불교신문 569호(3월 15일자) 16면에 게재한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명의 "공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이 임시종정 취임에 응함으로써 중도제위에게 취임사를 하려는 것을 알고 본인 주변사람들이 본인의사를 추측하여 게재한 것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아 래

취 임 사

귀의 삼보하옵고
전국의 대한불교원효종 종도 여러분! 병술년(丙戌年) 새봄을 맞이하여, 사찰운영과 모든 뜻하시는 일들이 새봄의 기운과 함께 일의 화창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종단은 법흥 종정스님 입적 이후 혼미를 거듭해왔습니다. 이는, 종도 원효성사의 화쟁정신을 망각한 몇몇 지각없는 자들의 종권에 대한 야망으로 종단이 양분되어 심지어 법정시비까지 야기되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의 일체 시비 분쟁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모두 삼보전에 참회하고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보살도를 실천하기 위해 정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종단분규를 원만히 수습하고 화합된 종단을 이룩하려는 큰 뜻으로, 2005년 12월 14일자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5 비합 278 임시종정 선임" 결정으로 노남(老南)이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종정"의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일체의 분파(서울, 부산)관념을 초월하여 오로지 종정중심제의 종헌 중법에 따라 종단이 정상화 될때까지 공정하고 민주적인 신념으로 임시 종정체제로 운영할 것을 천명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김대관(벽송) 합장**

불기 2550(2006)년 3월 9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 광성빌딩 503 전화: 02)735-0501

공 고 <무효공고전>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종정 종령 제 603-1호

귀의 삼보하옵고

전국의 대한불교 원효종 종도 여러분! 병술년(丙戌年) 새봄을 맞이하여, 사찰 운영과 모든 뜻하시는 일들이 새봄의 기운과 함께 일의 화창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1. 그동안 우리 종단은 법흥 종정스님 입적 이후 혼미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는, 종도 원효성사의 화쟁정신을 망각한 몇몇 지각없는 자들의 종권에 대한 야망으로 종단이 양분되어 심지어 법정시비까지 야기되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2.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의 일체 시비 분쟁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모두 삼보전에 참회하고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보살도를 실천하기 위해 정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3. 이제 종단분규를 원만히 수습하고 화합된 종단을 이룩하려는 큰 뜻으로, 2005년 12월 14일자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5 비합 278 임시종정 선임" 결정으로 노남(老南)이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종정"의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4. 따라서 본인은 일체의 분파(서울, 부산)관념을 초월하여 오로지 종정중심제의 종헌중법에 따라 종단이 정상화 될때까지 공정하고 민주적인 신념으로 임시종정체제로 운영할 것을 천명합니다.
5. 임시 종정체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무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가. 임시종정체제에서는 모든 중무운영과 집행은 종헌, 중법에 따라 시행한다.
나. 모든 중무집행의 인장은 '임시종정' 직인(직인)과 실인(사인)을 사용하며 그 이전(임시종정 선임 판결이전) 시비 당사자들이 사용한 모든 인장은 무효임을 공고한다.

- 다. 중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시 종무사무소를 경주시에서 둔다. (단, 종단이 정상화 되면 협의에 따라 적절한 곳으로 옮길수 있다)
- 라. 전국의 본 종단 소속 사찰을 지역별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균형있게 교구를 편성하고 각 교구도 철저히 조직하여 교구다운 교구로 활성화 한다.
- 마. 기존 등록사찰과 임적(入籍)승려는 '서울측'(승무진측)이든 '부산측'(퇴덕산측)이든 신고만 하면 되고, 현재 분파되어 있는 여타 단체와 사찰 또는 신규가입을 원하는 사찰이나 승려들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내면 심사후 긍정적으로 포용한다.
- 바. 새로운 화합으로 종단재건의 차원에서 모든 파벌관념을 초월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등용하며, 재교육을 통해서 종도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 사. 종전과 같이 종단 임원 임부의 전행으로 운영되던 종단을 전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민주종단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다.
- 아. 금후 종헌중법에 따른 원만한 정상종단 구성을 위해서 전 종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그 일시와 장소는 추후 서면통지 및 신문공고토록 한다.
- 자. 위의 각 항목에 대한 시행은 신문공고일로부터 한다.

직인
 계인
 실인(사인)

불기 2950년(2006년) 3월 8일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종정 김대관(벽송)

경북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1502-2번지 대원사 내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무소 054)776-1757